

# 삼성전자 COMMENT

## 1Q26 Conference call

반도체, 한동희 / donghee.han@sks.co.kr / 3773-8826

하반기 AI 서버 뿐 아니라 일반 서버 향 메모리 수요 예상보다 강할 것  
 하반기 HBM4 본격화. 27년 DRAM 대비 HBM 수익성 열위 크게 축소 전망  
 수요 충족률 역대 최저. 현재 접수된 물량 감안 시 27년 공급 부족 더욱 심화

### # Datapoint (QoQ) \*추정 및 가이드스

DRAM: (B/G) +0%, (ASP) +91%, (OP/OPM) 42.9조원/80% 추정, 2Q26 (B/G) +한자리수 증반% (가이드스)

NAND: (B/G) +9%, (ASP) +88%, (OP/OPM) 11.7조원/58% 추정, 2Q26 (B/G) +한자리수 초반% (가이드스)

### # 1Q26/2026년 CapEx

1Q26 11.2조원. 전분기대비 9.2조원 감소. DS 10.2조원, SDC 0.6조원

2026년 AI 수요 지속에 따라 투자 상당 수준 증가

메모리: 2026년 설비투자 확대 예정. 전체 투자 역시 상당히 증가 전망. 지속성장과 운영 효율성 강화 노력할 것

파운드리: 테일러 가동위한 투자 2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내내 지속 증가 전망

디스플레이: 8.6세대 라인투자 완료. 기존 라인 보완 중심 투자 집행으로 전분기와 유사

삼성전자 1Q26 연결 잠정 실적				단위: 조원	
	1Q26	4Q25	QoQ	1Q25	YoY
매출액	133.9	93.8	43%	79.1	69%
DX	52.7	44.1	20%	51.5	2%
VD/CE	14.3	14.8	-3%	14.5	-1%
MX/NW	38.1	29.3	30%	37.0	3%
DS	81.7	44.0	86%	25.1	225%
SDC	6.7	9.5	-29%	5.9	14%
Harman	3.8	4.6	-17%	3.4	12%
<b>영업이익</b>	<b>57.2</b>	<b>20.1</b>	<b>185%</b>	<b>6.7</b>	<b>760%</b>
DX	3	1.3	131%	4.7	-36%
VD/CE	0.2	(0.6)	흑전	0.3	-41%
MX/NW	2.8	1.9	47%	4.3	-35%
DS	53.7	16.4	228%	1.1	4780%
SDC	0.4	2.0	-80%	0.5	-20%
Harman	0.2	0.3	-34%	0.3	-27%
<b>영업이익률</b>	<b>43%</b>	<b>21%</b>	<b>21%p</b>	<b>8%</b>	<b>34%p</b>
DX	6%	3%	3%p	9%	-3%p
VD/CE	1%	-4%	흑전	2%	-1%p
MX/NW	7%	6%	1%p	12%	-4%p
DS	66%	37%	28%p	4%	61%p
SDC	6%	21%	-15%p	8%	-3%p
Harman	5%	7%	-1%p	8%	-3%p

주: 삼성전자, SK증권

주요 사업부별 2Q26 및 2H26 전망

	2Q26	2H26
<b>DS</b>		
<b>메모리</b>	<p>AI 산업 성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강세 지속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HBM4E 첫 샘플 공급 예정</p> <p>하반기 출시 예정인 GPU/CPU용 초기 메모리 수요 적극 대응 DRAM, NAND 공히 AI용 제품 중심의 판매 운영 지속 계획</p>	<p>지속적인 서버용 DRAM 및 SSD 수요 강세 전망 Hyperscaler들의 AI 서비스 확대, 기업용 LLM 본격 도입 Agentic AI의 빠른 확산에 의한 수요 성장 가속화 전망</p> <p>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메모리 시장 선도 HBM4 확대 및 DDR5, SOCAMM2 등 AI용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지속 확대 KV Cache 스토리지 수요 집중하는 동시에 PCIe Gen6 서버 SSD 초기 시장을 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주도</p>
<b>S.LSI</b>	<p>볼륨존 스마트폰용 SoC/센서 판매 지속 확대</p>	<p>플래그십 SoC의 후속 과제 확보 2억 화소 센서 고객 확대 및 라인업 강화</p>
<b>Foundry</b>	<p>선단공정 라인 가동률 최고 수준 도달 HBM4 B-die 등 공급 증가로 실적 개선 목표 1.4나노 개발 순항, 2나노 대형 수주 확대 추진</p>	<p>2나노 2세대 공정 모바일용 제품 양산 시작 4나노 메모리 &amp; AI/HPC용 LPU 양산 본격화 AI/HPC/Auto 및 Aero 등으로 사업구조 다변화</p>
<b>SDC</b>		
<b>중소형</b>	<p>수요 약세 전망 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하이엔드 제품 중심 판매 추진</p>	<p>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하 지속 예상 차별화 기술 기반 프리미엄 제품 안정적 공급 및 8.6G IT OLED 신규 양산으로 매출 성장 추진</p>
<b>대형</b>	<p>스포츠 이벤트 및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수요 증가 대응</p>	<p>최상위 프리미엄 TV 시장내 입지 공고화 및 모니터 고객 기반 확대 주력</p>
<b>MX/NW</b>		
<b>MX</b>	<p>신모델 효과 감소 예상되나 제품 믹스 개선 및 신규 A시리즈를 통해 전년비 매출 성장 추진 플래그십 중심 확판 및 리소스 효율화 추진함에도 수익성 감소 불가피 전망</p>	<p>플래그십 확판 및 업셀링 기초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으로 전 세그먼트 성장 추진 폴더블 개발 고도화 통한 다양한 사용자 니즈 대응 원가 부담 가중이 예상되나 비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익성 하락 최소화 노력 지속</p>
<b>NW</b>	<p>해외 시장 중심의 매출 상승을 통한 실적 개선 전망</p>	<p>vRAN/ORAN, AI-RAN 리더십 기반 신규 수주 확대 및 원가 경쟁력 강화 통한 수익성 확보 주력</p>
<b>VD/CE</b>		
<b>VD</b>	<p>Micro RGB TV 등 강화된 라인업 기반의 스포츠 이벤트 수요 선점으로 매출 확대 추진</p>	<p>AI 기능 강화 통한 TV 판매 리더십 제고, 서비스 사업 성장 가속화 및 OS 사업 확대에 성장 동력 강화</p>
<b>DA</b>	<p>AI 콤보 등 혁신제품 신모델 효과 극대화 및 에어컨 성수기 수요 대응으로 매출 성장 노력</p>	<p>프리미엄 확판, AI 데이터센터 HVAC 수주 확대 및 비용 효율화 통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개선</p>
<b>Harman</b>	<p>전장 수주 과제 공급 본격화로 실적 개선 전망</p>	<p>전장 제품 공급 확대 가운데, 프리미엄 중심 오디오 확판으로 견조한 수익성 동반 성장세 유지 추진</p>

주: 삼성전자, SK증권

## # 주주환원

보통주 372원, 우선주 372원 분기 배당 결의

연간 최소 정규배당 총액은 9.8조원, 매분기 배당은 2.45조원. 1분기 배당은 5월 중 지급 예정

자사주: 24년 11월 결의 통해 주주가치 제고 목적 10조원 매입 발표. 25년 9월까지 완료

이 중 3조원 취득 물량은 25년 2월 1차 소각 완료. 또한 투명성 강화 노력 일환으로 잔여 물량 소각 약속에 따라 1분기 전략

소각 결정. 단, 임직원 보상목적 1.6조원은 제외. 소각은 당월 초 완료. 주주가치 제고 노력 지속 중

이번 소각 자사주는 보통주 7,336만주, 우선주 1,360만주. 각각 보통주 중 1.2%, 우선주 중 1.7% 규모

금액 환산시 총 14.6조원 수준

## # 사업부별 실적과 전망

### <메모리>

**1Q26:** 하이퍼스케일러 AI 인프라 확보 위한 투자 확대, 에이전틱 AI 수요로 서버 중심 수요 강세 더욱 뚜렷

서버향 제품 중심 확판 주력하고, 업계 최초 HBM4와 소캬 2 첫 양산 출하 개시

1Q26 PCIe Gen 6 SSD 개발 이후 평가 중

**2Q26:** AI 산업 성장이 메모리 수요 견인. 기술리더십 위해 2분기 중 HBM4e 첫 샘플 공급 예정

제한된 공급 가용량 내 하반기 신규 GPU, CPU 향 초기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디램, 낸드 모두 AI 향 중심 공급 운영 지속

**2H26:** 에이전틱 AI 확산 예상보다 더욱 가속 전망. AI 서버 뿐 아니라 강한 워크로드 특화된 범용서버 역할 더욱 중요해질 것

상응하는 일반 서버향 디램, SSD 추가 수요 또한 예상대비 가파르게 증가할 것

모바일, PC 는 주요 부품 가격 상승. 세트 가격 인상 및 메모리 탑재량 변화로 일부 수요 영향 예상. 다만 업계 서버 중심 믹스 실행으로 전반적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

디램, 낸드 모두 추가적 서버 수요 증가세 감안해 유연한 제품 믹스 통해 대응

디램은 다수 주요 고객향으로 HBM4 공급 확대, 고성능 고용량 D5, 소캬 2 등 AI 제품 비중 지속 확대

낸드는 KV 캐시 스토리지 수요 확대 집중. PCIe Gen 6 초기 시장 주도해나갈 것

### <시스템 LSI>

**1Q26:** 스마트폰 수요 약세 불구,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신제품 출시와 긍정적 계절 요인 맞물려 SOC 중심으로 실적 개선

**2Q26:** 계절성으로 매출 감소 예상. 이에 대응해 주요 고객사 신규 중고가 SoC, 이미지센서 판매 주력

**2H26:** 부품 비용 상승 압력으로 시장 수요 둔화 예상. 기술적 우위 바탕으로 시장 주도권 지속 강화할 것

특히 플래그십 SoC 신규모델 진입 통해 확판, 2억화소 중심 제품 라인업 강화

중장기적으로 고부가 확판, 신성장 확보 주력

미세픽셀, 초고화소 경쟁력으로 이미지센서 강화하고, 커스텀 SOC 중심 신사업에서의 성장 기회 찾을 것

### <파운드리>

**1Q26:** 계절 비수기. 수요 상저하고 영향으로 실적 감소. 다만, 전년동기대비 두자리 이상의 매출 성장 시현. 개선 흐름 HPC 향 중심 고객 주문 지속 확보. 또한 광통신 모듈 대형업체에 과제 수주 성공해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 전략적 확보

**2Q26:** 현재 선단공정 가동률 최대 수준 도달. HBM4 베이스다이 비롯한 선단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전망  
베이스다이 1.4 나노 공정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개발 중. 2나노는 대형 고객사 중심 수주 확대 추진 중

**2H26:** 2나노 2세대 기반 모바일향 신제품 양산 시작 예정. 4나노 메모리향 확판 및 AI 및 HPC 향 LPU 신제품 양산 본격화.

이를 통해 선단공정 견조한 수요 중심으로 두자리 이상 매출, 손익 개선 전망

사업구조를 모바일 중심에서 탈피. AI, HPC, Auto, Aero 등으로 다변화해 체질개선 주력

### <디스플레이>

**1Q26:** 중소형은 전분기대비 계절 비수기, 메모리 가격 영향으로 실적 하락. 대형은 게이밍 모니터 수요 호조로 안정적 판매

**2Q26:** 스마트폰, IT 수요는 메모리 공급, 가격으로 약세. 상대적으로 수요 안정적인 하이엔드 중심 확판 예정  
대형은 올해 예정된 스포츠 이벤트, 신제품 출시효과로 수요 증가

**2H26:** 불확실성 지속되지만, 수익성 유지 위해 프리미엄 중심 전략 지속

스마트폰은 저소비전력, 사생활 보호기술 등을 프리미엄 출시 시점에 맞춰 안정적 공급

아이티제품은 8.6세대 IT OLED 신규양산 통해 매출 성장

QD-OLED는 프리미엄 세그먼트 입지 공고히, 모니터는 일반 시장 및 기업으로 확대

26년은 어려운 경영환경. 매출성장 위해 프리미엄 중심 포트 강화할 것

**<MX>**

**1Q26:** 스마트폰은 전분기대비 비수기 진입으로 감소. 프리미엄, 중저가 모두 수량, 금액 하락  
 다만 신모델 출시 일정 조정 및 지정학 리스크에도 전분기대비 매출, 이익 모두 증가  
 전년대비로도 울트라 비중 증가로 ASP 및 매출 성장 달성. 메모리 가격 상승에도 한자리수 수익성 달성

**2Q26:** 전체 스마트폰 수요 전분기대비 계절성으로 감소 예상. 매출 전분기대비 하락 전망  
 견조한 판매 보이는 S26 시리즈 및 판매 호조 폴더블, FE는 확판 기조 지속  
 전세그 성장 추진. 부품 가격 부담 가중 불가피. 주요 협력사와 전략적 협력 통해 공급 안정성 노력. 다만 이익 감소 불가피

**2H26:** 부품가 상승으로 수량 감소하지만, 매출은 프리미엄 확판으로 상승 전망  
 태블릿은 수량, 금액 모두 원가 부담, 프로모션 축소로 역성장. 노트는 ASP 인상으로 금액은 성장하나 출하량은 감소 예상  
 플래그십 중심 성장은 AI 기능 강화 및 폼팩터 혁신으로 추진, 폴더블은 제품 개발 고도화해 다양한 사용자 니즈 대응  
 에코는 AI 기능 및 워치 헬스 기능 고도화로 프리미엄 비중 확대, TWS 라인업 다변화  
 멀티모달 AI를 신규 폼팩터에 적용 예정.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가 부담 가중으로 이익 차질 전망  
 다만 AI 리더십 기반 플래그십 라인업 강화,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하락 영향 최소화 할 것

**<VD>**

**1Q26:** TV 시장은 연말 성수기 이후 비수기 진입으로 감소. 다만 대형은 견조  
 프리미엄 중심으로 리더십 공고히했음.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개선, 전년대비는 감소

**2Q26:** 불확실성 지속. 다만 전년대비 스포츠 이벤트 특수로 성장 전망  
 수요 선점 위해 차별화 마케팅 활용하고, 마이크로 RGB TV 등 신모델 런칭 효과 극대화

**2H26:** 상반기 스포츠 이벤트 이후 전반적 감소세 예정. 거시경제 및 지정학 리스크 역시 전망  
 판매 리더십 제고 위해 AI 기능 지속 강화해 AI TV 대중화 선도  
 또한 TV 플러스 등 광고 서비스 및 성과형 광고 확대하고, OS 경쟁력 강화해 라이선싱 사업 강화할 것

## Q&A

### Q) 장기공급계약 진행 상황 및 노조와의 상여급 협상에 따른 1분기 총당금 반영 여부, 규모

주요 고객사들은 AI 관련 미래 수요 확신 기반으로 중장기 물량 확보 요청. 요청 기반으로 공급 가능한 범위 내 다년 공급계약 추진중. 일부 고객사들과는 계약 완료. 상호 신뢰 기반의 기존 계약과 달리 상당 수준의 구속력, 사업 안정성, 가시성 확보 가능 중장기 수요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상여금 총당은 노사가 협의 중. 조건 및 규모 아직 확정되지 않아 1분기 실적에는 반영하지 않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2분기 총당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

### Q) 1Q26 메모리 실적 세부, 5월 총파업에 따른 경영 영향

에이전틱 AI 도입으로 AI 관련 수요 추가 증가. 다만, 업계 공급 확대 여력은 제한. 공급 부족 더욱 심화  
AI 수요 트렌드와 연계해 서버향 확판. 디램 10% 초반, 낸드는 20% 초반 증가 (서버향). 서버향 분기 최대  
디램 B/G는 가이던스 달성, 낸드 B/G는 전분기대비 한자리수 후반 증가해 가이던스 상회  
가격은 시장 가격 상승과 서버 중심 확판 맞물리며 디램 90% 초반, 낸드 80% 후반 상승

노조는 4월 23일 평택 집회 이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예고. 파업이 되더라도 전담 조직 및 대응 통해 생산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것. 노조와의 대화 우선해 원만히 해결할 것

### Q) 올해가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마지막 해. 향후 주주환원 정책 방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존에 약속했던 주주환원 정책 충실히 이행할 것. 차기 주주환원 정책 논의 진행 중  
이사회 중심으로 최선의 정책 지속 검토하고, 고민해 결정되는 대로 발표  
110조 이상의 시설 및 R&D는 평택, 테일러, 용인클러스터 중심 투자 지속과 차세대 미래 기술 연구 포함

인수합병 관련해 지속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위해 포트 재점검하고 중장기 성장 이뤄낼 수 있도록 전략 과감히 실행할 것  
미래 신기술, 신사업 센싱 및 우수기술업체 발굴, 협력 외 지분 투자 등 병행 중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 트렌드 적극 대응하고, 공조/전장/로봇 등 기술 주도권 확보할 것

### Q) 중동 전장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MX 수익성 악화 대응 방안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 중.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이슈는 없음. 일부 이스라엘, 중동에서 가스 수입하지만 안전재고 확보하고 있고, 대체 물류 루트 확보 및 거래처 다변화 되어있음. 과거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를 겪으면서 중장기 수급 밸런스 맞춰 대응 중

다만 유가 상승은 글로벌 해상 항공 운임에 영향주고 있어 리스크 확대  
공급망 운영 최적화해 국제 운송에 따른 비용 부담 최소화 노력 중. 해상항공 물류업체 중장기 파트너십, 대체 수단 활용 통해 물류비 상승 영향 최소화 전략 실행 중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MX 수익성 전년대비 악화. 2분기에도 원가부담 가중 전망  
안정적 공급 기반으로 신규 제품 확판하고, 개발 구매 영업 비용 효율화 노력해 이익 감소 방어할 것

### Q) 2분기 사업 전망 및 출하 가이드스. 피지컬AI향 전략

당분간 메모리 시장 성장 모멘텀은 AI 수요가 견인. 에이전틱 확산으로 토큰 처리량 급격히 증가 중이며, 데이터 연산 처리 효율성 높아지며 생태계 빠르게 성장 중. AI 기술 발전이 구조적으로 메모리 수요를 견인함에도 신규팹 리드타임 감안하면 업계 내 공급 확대는 제약 불가피. 타이트한 재고 수준하에서 공급 가용량이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요 대비 충족률 역대 최저 수준. 공급 부족 우려한 고객으로부터 27년 요청. 현재 접수된 물량으로도 공급 부족 더 심화될 것  
서버 중심 믹스 제고

2Q26 B/G 디램 한자리수 중반 증가, 낸드는 한자리수 초반 증가 예상

로봇 주요 부품 내재화 추진해 최적화된 맞춤형 부품 개발 역량 확보 중. 첨단 로봇 기술 집약체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해 생산성 확대, 삶의 질 제고. 제조용 로봇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홈, 리테일로 발전시킬 것  
자체 기술력 확보 주력하고, 국내 업체와 협력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시 투자 인수도 추진할 것

### Q) 업계 최초 HBM4 양산 출하. 올해 판매량 전망 및 4e 현황. 디스플레이 판가 인하 압력에 대한 대응 방안

올해 HBM 매출은 전년대비 3배 이상 대폭 성장 전망. 1c 최선단 기반으로 선도 경쟁력으로 성능 스펙 상향 조정 견인. 고객의 채택을 통해 성능으로 실제 프리미엄으로 이어지고 있음. HBM4의 차별화된 성능으로 고객 성능 집중. 캐파 모두 솔드아웃 하반기 공급량 본격 확대 예정. 4 매출은 3분기부터 전체 HBM 매출의 절반이 넘고, 연간으로도 과반  
HBM4 양산 통한 기술력 바탕으로 핀당 16Gbps, 4.0TB/s 지원하는 HBM4e 사업화 가속화. 2분기 첫 샘플 출하 예정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세트업체 원가 부담 가중. 디스플레이 수요 위축, 판가 인하 압력 지속  
대응위해 사업 운영 효율화,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 극한의 원가 경쟁력과 차별화 기술개발 가속화  
수요 견조한 프리미엄 중심 포트 강화, 고객 기반 확대 추진 예정

### Q) 2, 4나노 선단공정 및 레거시 공정 수주 상황. VD 사업 전망

중장기적으로 응용 포트, 다변화 수주 추진 중. AI 및 DC 수요 강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턴키로 확보하려는 수요 뚜렷  
다수의 AI, HPC 대형 고객사와 2나노 협력 논의 활발히 진행 중. 일부 고객은 가까운 시일 내 가시적 성과

4나노 공정 기반 HBM4 베이스다이가 우수한 성능으로 차별적 경쟁력으로 인정받아 4나노 수요 견인  
대응 위한 공급 확대 방안 적극 검토 중

오토, 로보틱스 고객과 2,4나노 공정 채용 논의 중, 대형거래선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 신뢰성 확보 추진 중  
고대역, 저전력 데이터 전송 요구 높아짐에 따라 실리콘포토닉스 수요 빠르게 확대 중  
소자 뿐 아니라 선단공정, 3D PKG 적용한 기술 개발 중.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와는 26년 하반기부터 과제 양산 시작  
다양한 응용처에서 경쟁력 확보해 중장기 매출 성장 기여 노력할 것

VD는 원자재 가격 상승, 대외 불확실성으로 실적과 수익성 확보 불확실  
 이에 대응 위해 마이크로RGB, OLED, 미니LED 신모델 런칭효과 극대화 시킬것  
 프리미엄은 마이크로RGB, 볼륨존은 미니LED 등으로 적극 대응  
 월드컵은 본선 진출, 대회 기간 연장 환경 속 차별화된 마케팅 통해 확판 노력할 것  
 서비스 비즈로의 시장 변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TV플러스, 아트TV 공고히하고, 아트스토어 공고화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목표

### Q) HBM과 일반 디램 믹스 운영 전략. 엑시노스 2700개발 현황 및 점유율 전망 및 응용처 다변화

최근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일반 디램이 hbm보다 높은 수익성 기록. 단기 실적 측면에서는 서버 디램 중심 운영이 유리.  
 실제 업계 관행적으로 백엔드 캐파 리드타임 고려해 연간 단위 선행가격 운영중이나 일반 디램은 분기단위 협상  
 매분기 일반 디램 가격 상승 폭 크게 확대되며, HBM과 일반 디램 수익성 역전현상 발생

다만, 수급 격차 확대되고 있는 HBM 협상 환경 감안하면, 27년에는 수익성 격차 큰 폭 축소 전망  
 추론 서비스, 에이전틱으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일반 서버에 대한 필요성 커지는 중  
 HBM과 일반 디램 수요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 단기 수익성만을 고려해 편중된 믹스를 운영하면 인프라 빌드 제약 발생  
 지속적인 기반 수요 창출 위해서는 일반 디램, HBM 균형적인 공급 필요  
 중장기 성장성과 장기적 고객 관계 및 기술경쟁력 확보 등 여러 요소 감안해 균형적 가격 믹스를 실행할 것

엑시노스2700은 플래그십 기술 경쟁력 기반으로 개발 중. AI 성능 강화 통해 점유율 확대 기대  
 AI 트렌드가 훈련에서 추론으로 전환되며, 추론, 고객 맞춤형 시장 빠르게 성장  
 데이터센터에서 온디바이스까지 고객별 커스텀 솔루션과 아키텍처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

### Q) MX 점유율 방어 전략. 가전 체질 개선 전략.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관련 전략

26년 시장은 금액으로 소폭 성장, 수량은 큰 폭 하락 전망. 플래그십 비중 확대 통한 매출 성장, 전 가격대 포트폴리오로 매출,  
 수량 아웃퍼폼 목표. 판매 호조인 폴더블, FE 통해 매출 성장, A57, 37 통해 전세그먼트 성장 목표  
 프리미엄 판매와 업셀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 공급망 통해 대응. 다만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

가전 사업 전반 선택과 집중 추진 중. 핵심 사업 역량 집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수익구조 다변화 방안 검토 중

생성형 AI 및 고성능 컴퓨팅 폭발적 증가로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향후 30년까지 지속 증설 전망. 냉각 시장은 24년 47억달러,  
 30년 166억달러로 연평균 24% 성장 전망. 지난 해 플랫폼 사를 인수해 냉각 시장 진입 위한 교두보 마련  
 유럽에서 미국 및 한국 시장 진출 추진 중. 포트 확대 및 지역 다변화 지속 추진할 것

### Q) AI향 낸드 시장 전망

대규모 모델 구동에 필요한 용량과 사용량 빠르게 증가. HBM 및 디램 중심 구조로 대응하기에는 비용, 용량 부담 스토리지 활용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

엔비디아는 CMX와 같이 낸드 기반 스토리지 확대 언급. 고성능 스토리지 수요 증가 예상

향후 AI 시스템 내 스토리지 활용 확대되며 HBM, 디램, 낸드 성능 차이에 따른 데이터 이동 지연 요구 확대될 것  
고성능, 저지연 특성 고려한 제품 솔루션 필요성 높아지고 있음

초고성능 낸드 스토리지 솔루션은 PCIe Gen 5, 6기반으로 양산 준비 완료. Gen 6의 경우 초기 샘플 평가 긍정적 피드백  
AI 서버, 데이터 센터향 하반기 Gen 6 초기 시장 선점 목표

QLC 수요 적극 대응 중. V9으로의 전환 가속화 중. 지난 3월 성능 및 신뢰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2Tb QLC 개발 완료  
256TB 서버 SSD 향 초고용량 라인업 확대 통해 대응력 확대할 것

### Q) TV 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 테일러 증설 현황 및 팹2 계획. 레거시 파운드리 운영 방안

TV는 경쟁 심화로 변화. TCL, 소니 합작은 생산력과 브랜드가 협력하는 형태.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나리오  
프리미엄, 엔트리까지 경쟁력 강화해 경쟁구도 재편하고 리드할 것. 마이크로RGB 도입해 프리미엄 리더십, 볼륨존에서는 미니 LED로 시장 대응력 확대할 것. 소비자AI경험 고도화해 차별화 요소 강화할 것

테일러 팹1은 지난 4월 23일 장비 반입식 진행. 26년 가동 및 27년 양산 개시 이후 단계적으로 2나노 캐파 확대 계획  
팹2는 수주 논의와 병행해 구축위한 초기 검토 진행 중

레거시 라인은 기술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부가 스페셜티 역량 집중하고, 경쟁력 낮은 공정은 과감히 정리할 것  
공정 마이그레이션 지속 예상되는 CIS 및 DDI는 17나노로 전환하고, 현재 8인치 양산중인 PMIC, DDI, CIS는 순차적으로 라인클로징. 최적 믹스 운영 통해 사업 체질 개선 지속할 것. 특히 신규 스페셜티 개발 통한 글로벌 고객 비중 확대해나갈 것

---

**COMMENT**

---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4월 30일 기준)****매수****93.90%****중립****6.10%****매도****0.00%**